생명나눔 백일장
부산시장상 등 수여

5월 30일 영광도서에서 열린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에 중 · 고교생 참가자들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몰려 열띤 경합을 펼쳤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영광도서 내 문화사랑방에서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백일장은 대상 2명과 금상 4명이 수여되며, 부산광역시장상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으로 제정됐다.

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은 "이번 백일장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원을 더욱 늘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줌은 물론, 이번에 화제가 된 부산시장상 및 교육감상 이외에도 권위 있는 상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마음동산 꾸미기
우곡선원 초심자 교육

선의 일상화 · 대중화 · 세계화에 앞장서는 참선도량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제58, 59기 초심자를 위한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 교육을 실시한다.

6월 8~29일 총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참선 교육은 해운대 오션타워 내 우곡선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10시 2시간씩 마련된다.

교육 내용은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좌선실수 △우곡의 선 △선과 21세기 △선 기공체조 △사람의 참품세 △참선 입문론 △날숨호흡의 정의 △선입문의 예(禮) 등이진행된다. (051)740-6299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02)2004-8216

"십선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천태종 삼광사 십선실천운동 대법회 봉행… 십선 실천 수첩 배포

김석조 신도회장의 선창으로 법회에 참여한 신도들이 '십선실천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9년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 독 릴레이 기도'로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에 귀감이 돼온 삼광사 불자들이, 이번에는 '십선실천운동'으로 수행의 생활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6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십선실천운동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 여 명이 참석했다.

십선(十善)이란 열 가지 선행을 이르는 말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개인완성, 불국토 건설, 법성체 결합'과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등 삼대 강령 및 지표에 담긴 천태종단의 종지종풍을 실현하기 위해 불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을 공표했다.

이는 △불살생(不殺生) 모든 생명을 살려주라 △불투도(不偸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라 △불사음(不邪婬) 바르고 맑은 행동을 하라 △불망어(不妄語) 바른 말을 하라 △불양설(不兩舌) 실다운 말을 하라 △불악구(不惡口) 사랑스럽고 친절한 말을 하라 △불기어(不綺語) 참다운 말을 하라 △불탐욕(不貪慾) 모두에게 골고루 베풀어라 △불진에(不瞋恚) 모두를 자비심으로 대하라 △불사견(不邪見) 슬기롭게 생각하라의 10가지 덕목으로 구성돼 향후 1년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특별 법문에서 "<유마경>에서 '십선이 보살의 정토'이며 '일심청정이며 국토청정'이라고 한 만큼 우리 모두가 계행을 실천할 때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이라며 "십선의 실천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근거해 대조사 스님의 법어를 따르는 수행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종교와 생활은 둘이 아니기에 십선운동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좋은 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냇물이 열반의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깨달음의 수승한 공덕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삼광사는 신도 전원에게 특별 제작한 '십선 실천 수첩'을 배포하고, 십선발원문과 함께 매일 실천 여부를 기록하며 철저히 수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혜원의 뜨락에서 차 한 잔
혜원 차문화 축제 성료… 차문화 견학

혜원 차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 비비기 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야생 차밭을 보유한 혜원정사(주지 원허)의 '혜원 차문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는 가람 뒤편으로 회주인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이 손수 가꿔온 1000여 평 규모의 야생차 밭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1년 사이 참가자 수가 급증했다.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일원에서 차 문화체험 입재식을 시작으로 차밭 견학 및 차 잎 따기, 차 덖고 비비기 등 차 만들기 체험, 육법공양, 108헌다례, 다시(茶時) 낭송, 어린이 다도 시연, 대금 연주, 두리차회 등이 진행됐다.

축제는 지난해에 진행됐던 '차문화 축제'를 단일 행사로 독립시키고, 능인선원(주지 성각), 대광명사(주지 목종) 등 다인 150여 명이 참가해 진정한 다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진실성 다인회장은 "작년 첫 출발을 알리고 차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다인들이 참석해 각기 다른 전통의 다도(茶道)와 다향(茶香)을 선보였다"며 "이에 2회, 3회 이어갈수록 다인들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차문화를 선도하고 보급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다도가 아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혜원정사 다인회는 다맥을 전수한 조실 고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 다법과 규범을 익혀 대중에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차밭과 다맥을 전수한 고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의 다법과 규범을 익히고 보급하는 다인회가 있는 저희 혜원의 뜨락에서 차문화를 보급하는 일은 당연하다"라며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차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혜원정사 다인회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 단체를 대상으로 차문화 체험 견학도 실시하고 있다. (051) 866-7771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여래사불교대학 종우 스님

포도 금낭화 해바라기 '등' 변신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예년에 비해 형태 및 소재가 다양하게 진화한 창작등이 눈에 띄었다. 그 중 창작등 경연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쥔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과 고안자 종우 스님(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부산연등축제는 한마음선원이나 범어사, 삼광사, 안국선원 등의 작품이 주를 이루며 행사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종우 스님은 이번 첫 출품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연등축제를 장식했다.

종우 스님은 이번 등 제작에 대해 "기초 교리 강의에서 불교교리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 지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의 이미지를 등에 대입해 불교지만 불교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등을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종우 스님과 여래사불교대학에게 대상을 안겨준 작품은 포도등과 금낭화등, 해바라기등, 금강저등이다. 하지만 이 밖에 제등행렬에서는 바나나등, 부케등, 수련등, 파인애플등 등을 합쳐 약 10여 종의 다양한 등들을 선보였다.

스님은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은 불자들과 함께 창작등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축제에서는 참신하고 아름다운 등을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부산 광복로 문화 거리 일대에는 종우 스님과 여래사불교대학이 만든 등들이 화려하게 수놓아 져, 10~20대 젊은 층의 축제 참여도를 높이는데도 한 몫을 했다.

종우 스님은 이번 등 제작 연유에 관해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등을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지구상 모든 무정, 유정물이 부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모습을 단지 등으로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인간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도 자연도 꽃과 풀잎도 모두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는데 다만 그걸 알아채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를 알려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맡아, 등을 만들어서 온 대지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연등이라는 것에 국한돼 있었지만, 그 형태를 바꿔보려던 제 의도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종우 스님과 여래사불교대학은 부산연등축제가 막을 내린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내년에 선보일 창작등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

"저희는 그동안 부처님 오신날마다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등을 만들었고, 올해 처음 부산연등축제에 참여했어요. 너무 쉬운 말인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존 등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아름답고 특별한 나만의 등, 우리 절만의 등을 만드는 데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종우 스님의 환희심이 오롯이 담긴 등들은 지금도 여래사불교대학 건물 내를 환하게 불 밝히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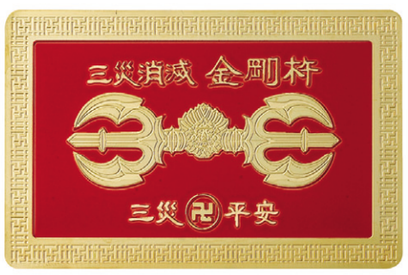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